

에세이

방법

- 글쓰기는 대조다. 하고 싶은 말 쓰기 전에 대조부터 써본다.
- 에세이는 감정적 아닌 논리적인 것이다.
- 그 당시의 맥락,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쓰는게 에세이다.
 -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고 진술할 때 힘이 생긴다.
 - 독자는 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.
 - 내안의 깊은 이야기가 좋은 에세이가 된다.
 - 나의 감정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. 왜?
- 추상적으로 쓴 다음, 당시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써라.
- 문제를 제기하고,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써라
- 자연스러운 흐름의 연장선에서 사유를 부여한다.
 - 날씨에 대한 사유를 쓰기 위해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해야지 썩뚱맞게 바로 날씨 사유에 대한 글이 나오면 이상하다.
- 공감 얻으려면 정보글 꼭 하나는 써라.
-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을 보는 나를 관찰한다.
 - 자신만의 문체, 자기 확신, 주장, 디테일이 명품 만든다.

쇼잉

- 보여 주는 것
 - 당시의 상황을 쇼잉해서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.
 - 남편과 부부 싸운한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
- 소설같은 에세이
 - 쇼잉이 많다. 작가의 생각보다 이야기 묘사가 많다

텔링

- 생각을 쓰는 것
- 생각이 많은 글은 어렵기 때문에 사례, 에피소드를 가져온 후 내 생각을 써야 독자도 이해가 쉽고 나도 글쓰기가 편하다.

감정

- 어떤 상황과 행동속에서 나와야 한다.
 - 복잡 다단한 감정
- 무작정 내 감정을 말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건, 행동, 현상을 적고 난 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사유를 적고, 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 감정을 적는다.
-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장소, 그 느낌을 가졌던 공간으로 독자를 데려와라. 감정을 결론지어 나열하지 말고, 독자가 느낄수 있도록 묘사한다.
 - 독자와 함께 간다.
 - 내 감정을 너무 나열하지 마라 절제한다.

마무리

-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작했듯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끝내라. 시각화 해라
- 교훈적인 마무리 강박적이다. 실천할 수 있는 한가지로 마무리지어서
 - 오늘부터 일을 미루지 말고 살아야겠다 x
 - 오늘부터 핸드폰을 끄고 필사를 꼭 한 장씩 해야겠다. o
- 그 장면을 보여주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.
- 잘 쓰려고 하지 말고 톡 끝내도 좋다.

스킬

- 주어를 서술하는 글은 짧아야 한다
- 역동적 동사 사용해야 생동감 있다
- 명사로 끝나면 생동감 없고, 동사로만 끝나면 여운이 없다.
 - 적절히 조화롭게
- 명사로 끝내지 마라. 힘이 없다.
- 직접화법 많이 써야 글맛이 산다.
- 첫문장에서 승부가 난다.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써라.
- 에세이는 에피소드가 중요하다.
 -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상황을 3-5줄 적어보고 장면, 상황, 묘사를 설정한다.
 - 한 쪽지에 2-3가지 에피소드를 넣고 잘 연결한다.
 - 사례 풍부할수록 좋다.
- 고급문장은 한자력에서 나온다.
- 소설 많이 읽고 작가들이 인물, 사건,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분석하라

묘사

- 포커스를 맞춰서 묘사
 - 바다의 고요함에 대해 쓴다
 - 구구절절 다 쓰려고 하지 말 것. 바다에 놀러가서 고요함을 느꼈고
- 그 묘사를 내면화 해라
 - 나는 왜 그 풍경이 좋은 거지 (내면화)
- 상상력을 끌어오고
 - 성난 파도를 상상으로 끌어왔고
- 마지막에 통찰을 넣어라
 - 고요한 바다를 보고 성숙함에 대해 느낀것을 통찰로 썼다.
- 그림을 그려라. 글드로잉
 - 특징을 잡아서 묘사해라
 - 공간감각 활용
 - 시선의 흐름을 따라가며 장면을 상상하도록 만든다.
- 대상을 묘사할 때 캐릭터의 반응을 반영한다.
- 글쓴이의 관점을 은유를 사용하여 묘사한 후 인간경험과 연결시켜라
- 개별단어에 집중하면 독창성과 창의성에 도움된다.